

서울 8개교 남녀공학 전환… 무학여고 총동창회 소송 공방

서울시교육청, 2028년까지 전환
학령인구 급감 대응, 불균형 해소
학교당 3년간 총 3억 지원금 편성
무학여고 총동창회 반대 투쟁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교인 성심여고 등 서울 소재 중·고교 8곳이 내년 또는 내후년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총동창회 차원에서 전환에 강력히 반대해 온 무학여고 역시 공학 전환 대상 학교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총동창회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한 11개교 가운데 8개교를 전환 대상 학교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무학여고, 정원여자중학교, 성심여자중학교, 한양중학교,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신정여자중학교, 서울신정고등학교 등 7곳은 2027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



무학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후암동 서울시교육청 옆 계단에서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로 운영된다. 성심여고는 한 해 늦은 2028학년도에 전환된다.

이번 조치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특정 지역·학교에 쏠린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히고자 추진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중학교 5곳, 고등학교 6곳 등 총 11개교로부터 전환 신청을 받고 학생배치계획 및 배정 여건, 전환 필

요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 시설 여건과 관계 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2027학년도 전환을 신청한 9개교 중 7곳, 2028학년도 신청 2개교 중 1곳이 '적정' 판정을 받아 최종 전환이 결정됐다.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휘경여자중학교, 휘경여자고등학교, 송곡고등학교는 '중장기 검토(미승인)'로 분류해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8개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구성원 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지도 인력 채용 등을 위해 학교당 3년간 총 3억 원(운영비 2억4000만원·인건비 600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편성해 지급한다. 화장실·탈의실·보건실 등 학생 편의시설 확

충을 위한 시설사업비도 학교별 사업 규모에 맞춰 차등 지원한다. 교명 변경, 조례 개정 등 개교 전 거쳐야 할 행정 절차 역시 뒷받침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남녀공학 전환 확정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개선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령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학여고 총동창회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총동창회는 '무학여고 남녀공학전환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지난 20일 오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 자리에서 공학 전환이 이뤄질 경우 식발·단식을 포함한 천막 농성과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구의·신길·갈현동, 신통기획 후보 선정

구의동 32일대, 동의율 73% 집계
신길동 113의 5, 노후도 81% 달해
갈현동 501의 1, 연신내 연계 정비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동, 영등포구 신길동, 은평구 갈현동 등 3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날 '2026년 제3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2만9780.5㎡), 영등포구 신길동 113의 5 일대(3만1677㎡), 은평구 갈현동 510의 1 일대(12만9814.1㎡)를 후보지로 정했다.

구의동 32 일대는 사업 동의율이 73%로 주민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차산역·천호대로와 연계

된 광역교통 접근성도 고려됐다.

신길동 113의 5 일대는 건축물 노후도가 81%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시는 인접한 기존 재개발 후보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해 거주 여건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갈현동 510의 1 일대는 연신내 생활권 계획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보할 계획이다. 후보지 경계는 선정위원회 조건 이행과 신통기획 등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시는 3곳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공정을 관리한다. 통상 18.5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줄여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올 하반기 신통기획과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정비구역 지정은 2년 안에 마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조건부 선정 지역은 조건을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사업성 보완 제도인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분 쪼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의동·갈현동 일대가 7월 1일, 신길동 일대가 4월 24일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한양컨트리클럽, 이태섭 신임 대표 선임

현장 중심 경영 노하우로 경쟁력 ↑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이사장 조갑주)은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태섭(59) 신임 대표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태섭 신임 대표이사는 수년간 경기 남양주 소재 한림광릉컨트리클럽에서 전문 CEO로 재직하며 재무경영과 마케팅, 각종 프로모션 행사 운영, 직원과의 소통, 친환경 경영 등을 두루 이끌어온 골프장 경영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골프산업의 성장 과정 속에서 현장 중심의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 향상과 조직 운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으며, 안정적인 경영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서울한양CC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태섭 신임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1호 골프장인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의 대표이사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조갑주 이사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북도-대구시, 신공항·행정통합 공동대응

이철우 지사, 추경호 시장 협력 강화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29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양측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전문가와 국회의원,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며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조속한 시일 내 다시 만나기로도 합의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합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정기국회 이전에는 대구·경북 국회의원과의 시도 지사가 참여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역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정부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29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공동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통합특별시 우선 이전 방침을 고려해 대구·경북에도 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5급3특 발전전략과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산업에 대한 대응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TK신공항 추진과 행정통합을 연계해 광역경제권 기반을 마련하고 토지보상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핵심 사업"이라며 "신공항과 행정통합 등 시·도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오는 8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구시 방문을 계기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포항시, 동북권 ICT콤플렉스 개소… 인재양성·기업지원 나서

AI·SW 개발자 양성, 취·창업 지원
교육장 등 교육·실습 인프라 구축

포항시가 경북·대구·강원을 아우르는 AI·SW 교육과 산업 디지털 전환 거점인 동북권 ICT콤플렉스를 개소하고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에 나섰다.

포항시는 29일 첨단해양R&D센터에서 동북권 ICT콤플렉스 개소식을 열고 AI·SW 교육과 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거점 운영을 시작했다.

동북권 ICT콤플렉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는 포항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핵심 교육·실습시설이다. AI·SW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산업의 AX(AI 전환) 지원을 목표로 구축됐다.

센터에서는 AI, 블록체인, 데이터,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비롯해 AI·SW 개발자 양성과 정,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형 실습, 글로벌 빅테크 기업 협력 교육,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29일 첨단해양R&D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AI·SW 교육과 산업 디지털 혁신을 이끌 동북권 거점의 출범을 알렸다.

또 첨단해양R&D센터 9층에 AI·SW 교육장 2곳과 오픈랩, 테스트베드, 3D프린터실 등 교육·실습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대구·강원의 인재와 산업을 연결하는 AI·SW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존 김천에서 운영되던 동북권 거점 기능은 포항으로 이전했다. 포항시는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로봇 등 미래 신산업 기반과 포스텍·한동대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역량을 활용해 청년과 재직자의 디지털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용선 포항시장과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우 경북도의회 부의장, 박시균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기관, 교육기관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후에는 'AI, 이는 만큼 일상이 달라진다'를 주제로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청년에게는 배움과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디지털 전환 기반을 제공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김진곤 기자 jingon@